빵과 체제의 덫에 걸린 민주주의

기획특집 소련사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소련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던 때도 벌써 보름여전의 일이 되었다. 비록 3일천하로 끝나버린 실패한 쿠데타였지만 그 여파는 소련내에는 물론 전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물론,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련의 급작스런 변화에 따라 각기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고는 소련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과정속에서 이번 사건의 성격과 함께 정치적인 의미를 학생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싣는다. 〈편집자 註〉

역사적 측면

쿠데타 실패이후 역사주체로 나선 소련민중

브레즈네프의 관성적 통치정책 경제침체 불러

스탈린 집권기 당·정부 관료화 「신계급」등장

소련은 8·19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산당의 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74년간의 전능적 통치권한을 누려왔던 소련공산당 지배체제의 종막을 내렸다. 사실 소련공산당의 흥망은 불가사의할 정도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1917년 볼셰비키 내부의 반대(지노비에프와 카메네프)속에서 전격적인 무장 쿠데타에 의해 행하여 졌으며 혁명이후 아무도 볼셰비키가 오래 정권을 유지하리라고 예측하지 못하였다. 8·19쿠데타는 그 가능성이 여러번 예견되었으나 아무도 3일천하로 끝나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1917년 짜르정권을 무너뜨린 2월 혁명당시 볼셰비키는 많은 혁명세력중 소수세력에 불과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경제적 곤경, 무질서, 불확실성등으로 혼돈에 빠진 노동자·농민들에게 "전권을 소비에트로" "땅, 빵 그리고 평화"의 표어아래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도시에서는 상당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18년 반혁명세력의 규합으로 적군과 백군사이에 내란이 일어나자 레닌은 사회주의체제를 단시일내에 건설하기 위하여 혁명적 방법을 동원하는 체제로 전시공산주의 정책을 수행하였다. 계획경제, 생산수단의 국유화등의 정책을 실행하면서 곡물 징발도 하였다. 내전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민중반란이 일기 시작하자 레닌은 점진적·개혁주의 방법을 채택하여 농민유화정책, 소기업의 개인소유와 사유재산 일부 요소 허용등의 신경제정책(1921-28)을 수행하였다.

신경제정책이 경제부활에는 성공적이었으나 개인기업인과 중산층 농민이 증가하자, 스탈린은 공산당내에 혁명을 위한 이데올로기 문제가 다수에의해 제기된 상황하에서 급격한 사회주의 혁명을 정책으로 택하였다. 1929년 제1차 5개년계획을 통한 가혹한 집단농장화와 무리한 고속산업화 정책을 추구하였으며, 기근과 부유농의 학살등으로 6백만이상이 사망하는 가운데 '아찔한 성공'으로 사회주의 기틀이 잡혔다고 공언하였다. 1930년대에는 피의 숙청등으로 스탈린에 의해 2천만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긴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스탈린은 소련공산당에게 스탈린체제 또는 전체주의라는 헤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낙인을 찍었다. 스탈린의 혁명적 이데올로기는 가압적 통치수단을 정당화하고 '사회주의적 현실주의'아래 문학·예술·과학·역사에 까지도 획일적인 통제를 하였으며 공산당의 전권적 사회통치체제를 구축하고 비밀경찰을 통한 공포정치를 하였으며 절대적인 중앙통제 경제체제를 이룩하고 농업의 집단화로 농업을 산업화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만성적 식량부족 현상을 초래하였다. 또한 스탈린은 '신계급'을 등장시켜 당과 정부의 관료화를 획책하고 이들에게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레닌의 소위 '계급없는 사회'원칙을 저버렸다.

흐루시쵸프는 1956년 제20차 공산당대회에서는 비밀연설에서 스탈린의 범죄를 폭로함으로써 세계뿐만이 아니라 공산당원들까지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흐루시쵸프 자신도 네번 울음을 터뜨렸고 30여명이 졸도하거나 발작하였다고 한다. 흐루시쵸프는 공포행위를 중단시키고 소비재 증가와 식량공급 증대를 꾀하고 경제정책의 지방분권화를 시도하였다. 또 1961년에는 소련은 더이상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가 아니고 "전 인민의 국가"임을 선포하였으며 1965년부터는 당 간부들의 임기제를 실시하고 농업과 공업 분야로 당 조직의 이분화 할 것을 결정하였다. 1964년 흐루시쵸프의 크리미아반도 휴가중 정치국원들은 흐루시쵸프를 '건강'상의 이유로 실각시켰으나 실제이유는 당 조직 개편으로 당 관료들이 자신들의 직위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브레즈네프는 흐루시쵸프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국내의 합의제 정책 결정을 준수하였으며 당 및 행정관료들의 직위에 안정을 부여하는 정책을 취하였는데 관직의 안정보장은 관료들의 부패와 관성적 통치 그리고 정실주의를 만연시켰다. 이러한 정치적 침체는 경제적 침체를 불러 일으켜 70년대 말부터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의 저하 그리고 과학 기술의 부진 등을 낳았다. 1978년부터 1985년까지를 흔히 노인정치시대라고 부르는데 1980년 7월에 정치국원의 평균 연령이 70세 8개월에 이르렀다. 그동안 소련국민들은 체제의 동맥경화증에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에 젖어 들었으며 근로기강도 헤이해 졌다.

1985년 3월 고르바쵸프의 등장은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1986년에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제창하여 계속 침체해가는 경제를 부활시켜 사회주의를 재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정치개혁이 없이는 경제개혁이 불가능 함을 깨닫고 스탈린의 과도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개혁하고 브레즈네프체제의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폭넓은 개혁을 추구하였다. 처음으로 민주적선거에 의한 의회를 구성하였고, 당은 의회를 통하여 정책 결정을 하게 하였다. 당관료들은 당내 경쟁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임기 5년의 중임에 한하게 되었고, 각 연방공화국에 자율성은 물론 지역 공산당들에게도 독자적 당 강령채택을 허용함으로써 레닌의 '민주적 중앙주의'의 손상을 초래 하였다.

1991년 8월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공식포기와 신연방조약의 체결로 새로운 정치체제의 구성을 계획하고 있어 공산당의 장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로 인해 소련의 지배계급인 노멘클라투라(또는 신계급)는 특권지위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들의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결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민중은 국가와 당으로부터 더이상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결국은 민주적 민중세력의 승리를 안겨준 결과가 되었다. 교조적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역사의 뒤안길에 앉게 되었으나 이것이 사회주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 승 함
〈연세대 강사·소련정치〉

정치적 측면

민족주의, 공화국 독립으로 연방체제 붕괴위기

연방정비·경제·민족문제, 급진개혁 성패좌우

급속한 시장경제 도입 국민욕구 충족 미흡해

광범위한 민주화와 시장경제 체제로서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파와 중앙집권체제의 강력한 소련연방을 추구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에 기반을 둔 보수세력간의 갈등의 사이에서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해 왔던 고르바쵸프 중심의 소련체제는 8월 19일에 발발하여 3일만에 막을 내린 불발 쿠데타를 계기로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으로 막을 올린 소련은 70여년간의 사회주의 체제가 이번 쿠데타의 실패로 인해 폭풍우를 향해 치닫고 있는 중이다. 노동자계급의 전위로서의 소련 공산당의 독재는 특권적인 당관료주의와 인권의 억압, 대중의 참정권 박탈, 그리고 정치체제의 폐쇄성등 정치제제상의 문제를 낳았다. 또한 중앙집권적인 경제의 비능률성과 낭비, 생필품을 포함한 소비재의 부족과 질적인 저하, 그리고 기술개발의 실패등 경제상의 문제점을 일으켰다.

이러한 소련 내부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 고르바쵸프의 개방.개혁정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고르바쵸프가 추구하였던 정책은 적어도 이념상으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였으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급격한 탈사회주의 과정속에 있는 현재의 변혁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개방체제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의 강화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볼수있다.

그의 개혁·개방정책은 미·소간의 신데탕트 무드를 조성하여 동서간의 이데올로기대립에서 새로운 탈이념시대의 세계질서를 형성하고, 동구에서의 소련의 지배권의 평화무드에 기여를 한 반면에 소련 국내에서의 산적한 문제들, 즉 경제체제의 효율성, 민족문제, 시장경제의 도입, 관료제의 경직성과 부패척결등의 문제해결을 하는 데에는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세력다툼에서 교묘하게 불안정한 균형을 취하였던 고르바쵸프는 급진개혁파들로부터는 개혁의 진행속도와 폭 그리고 깊이에 대한 비난을 받았고, 과도한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인한 기득권상실에 불안해하는 보수파의 비난도 함께 받았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보수세력에 의해 일어났던 불발쿠데타인 것이다.

이번 쿠데타는 국민의 원성을 사온 경제적 피폐와 신연방조약의 통과에 따른 중앙정부의 약화에서의 기득권상실을 우려한 당관료와 군부세력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1985년부터 실시되어온 개방·개혁정책의 결과로 세력을 키워온 옐친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세력과 쿠데타세력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 국제적인 여론의 압력, 그리고 주도세력내부의 분열로 인해 3일만에 보수세력의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보수세력의 몰락은 그들이 기반으로 삼아야 했던 기층민중의 지지를 얻지못하고 저항만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제일의 실패 원인으로 볼수 있다. 쿠데타의 실패는 소련의 정치적 향방이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던 고르바쵸프의 온건노선에서 옐친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세력의 노선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반쿠데타 세력의 득세로 인해 소련체제는 1917년의 혁명과 비견되는 급격한 정치적 변혁의 와중으로 휩싸이게 된 것이다. 즉 공산당 활동의 정지와 해체, 각공화국의 분리독립 선언, 연방체제의 급속한 와해위기, 그리고 옐친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의 정국주도로 이어진 것이어서 소련의 앞날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련연방의 약화에 따른 각공화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주의의 대두이다. 쿠데타 발발이전에 이미 일어나고 있던 발틱3개공화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분리독립운동은 쿠데타 실패이후 독립을 승인받는 데 까지 이르렀다. 이에 뒤이어 흑해연안의 그루지야, 아르메이아의 분리독립선언등 15개공화국중 8개공화국의 민족주의 운동은 소련체제에 불안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민족주의 문제는 단순히 각공화국의 분리독립의 차원이 아니라 국경문제, 핵병기를 포함한 무력의 관리문제, 그리고 각공화국내의 민족들간의 유혈갈등의 가능성등 공화국간의 협력의 가능성보다는 갈등 내지는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소련에서 개혁.보수의 이념적인 갈등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문제로서 대두될것이며, 소련연방의 장래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가 될것이다.

둘째로 급격한 시장경제의 도입이 소련현실에 어떻게 적합하게 수용이 되는냐 하는 문제이다. 페레스트로이카의 한 축으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추구되었는 데 고르바쵸프는 점진적으로 추구하였지만, 쿠데타 실패이후 급진개혁파들의 주도로 급속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이 그동안 불만에 차 있는 국민들의 물질적욕구를 얼만큼 충족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에 따라서 소련의 집권층이 정당성을 얻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급속하게 몰락하고 있는 보수세력의 향배문제이다. 아직 여러 요소에서 온존해 있기때문에 현재의 집권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제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소련의 정치상황은 과도적인 대변혁의 시기이다. 그것은 희망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불안과 불확실성의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소련은 과거와 같은 미국에 필적하는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문제에 관여하는 역할보다는 국내적인 문제해결에 전력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현안(연방체제의 정비, 민족문제, 경제,…)의 해결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 형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현 소련사태를 지켜보는 학생의 입장

"공산주의는 이제 더이상 지구상에서 존재할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북한도 더 이상 폐쇄적으로 문을 닫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는 이론에 불과할뿐 현실적으로 결코 적용될수 없는 체제임이 우리앞에 입증시키고 있다"

이상은 우리 언론이 내내 떠들어댄 글들의 골자들이다. 요며칠간 우리들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소련의 엄청난 변화는 소련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미쳤으며 특히나 우리 남한 변혁운동 진영과 노정권, 그리고 4천만 민중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숙제로 다가왔다.

85년 고르비가 서기장이 된후 시작한 개방, 개혁정책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소련인민들의 열화와같은 지지를 받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공산당의 관료화와 부패가 점점 극심해지고 경제문제가 한계에 부딪치게 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지 못하였기에 소련의 변화는 필연적이었다.

하지만 고르비의 개방, 개혁정책은 지난 6년간 심각한 편향을 노정하면서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쿠데타는 소련의 공산당보수파들의 사회주의 파괴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어 일어난 사건이었다.

쿠데타의 구체적 배경은 첫째, 고르비의 개방, 개혁정책이 심각한 편향과 소련사회에 대한 전망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즉 당의 관료화를 막고 당내 민주주의 실현과 생산력향상으로 소련의 경제난을 타개하고자 시작된 개방, 개혁정책은 우선 인민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주인으로 내세운다는 사상적 관점을 견고히 고수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를 노정했다. 85년 개방, 개혁정책을 대중동원을 통해 이룬 고르비는 그후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 개방정책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그들의 자주성을 동원, 발동하여문제를해결하지 못하였다.

소련사태를 계기로 지배세력은 허구적 흡수통일논리를 불어 넣는 동시에 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로 소련 인텔리들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주의가 발전하고 과학기술문명이 발전할수록 다양한 계급구성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인텔리계층이 양산된다. 사회주의 내에서 인텔리는 사회주의를 지도하는 단위이며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이념과 방법을 전계급 계층으로 확산시켜 인민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로 세우는 단위인 것이다. 그러나 소련 인텔리가 고르비의 등장이전에는 관료화와 부패가 만연했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했다면 고르비 이후 대부분의 인텔리들은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사상적 공세가 집요하게 들어옴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기수가 되기 보다는 오히려 인민들을 공공연히 선동하며 소련사회를 자본주의화 하기위해 앞서왔던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옐친이다) 이러한 인텔리들의 사상적 혼란은 소련사회가 이미 예정될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쿠데타 이후 소련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고르비의 정책이 계속되는 시기와 내용적으로 크게 달리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소연방 산하 15개 공화국중 이미 8개 공화국이 연방정부를 무시하고 독립국가로 선포했다. 특히 발트3국의 독립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며 자본주의적 국가들 역시 이들국가에 대해 국가를 이정했다.

소연방의 문제는 고르비를 중심으로 한 연방체제유지 즉 공화국의 권한을 대폭강화해 주면서 느슨한 형태의 연방을 유지하는 것과 옐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연합 즉 카자흐 공화국의 입장, 미국등 제국주의의 입장의 형태가 모색되어지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한반도에도 그 영향이 대단히 크게미칠 것이다.

우선은 제국주의의 속성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여전히 나타낼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대립화정책으로 이북내의 개방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자본주의화하려는 음모로 나타날 것이며 상대적으로 한반도의 전쟁도발책동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 노정권의 북방정책을 더욱 가속화 시켜 남한국민들에게 허구의식 즉 북한의 개방을 통한 흡수통일논리를 불어넣어 미국의 지배를 공고이 하면서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정 연 욱
〈외대영문·4〉

사회주의는 몰락했는가? 한국사회 변혁의 대안으로 상정되던 사회주의는 현실적으로, 또한 이론적으로 파산했는가?

지배계급의 경우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TV, 신문 등을 통해서 가장 단호한,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철없는 대학생, 노동자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건설하려고 하던 사회주의는 몰락하고 있지 않느냐.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너희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인민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실패하고 이후에 벌어진 공산당의 불법화와 해체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레닌의 동상이 철거되고 폭파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신이 욕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어서 이들은 이렇게 외쳐댄다. "체제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포기해라. 근로자는 파업대신 공구와 망치를 들고 작업장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어서어서 돈을 마련해서 주택도 마련하고 자식들 학교도 보내거라. 그리고 철부지 학생들아! 매일 화염병 던지는 짓거리하지 말고 강의실과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운동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나라를 잘살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마지막 대학교수들을 안방극장에 앉혀 놓고 운동진영에게 "너희들은 이론적으로 파산했다"라고 외쳐댄다. 사회주의는 이상적인 것이었으며, 결코 현실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평화적 시기(비혁명적 시기)를 지배하는 사상은 지배계급의 것이라는 말을 입증이나 하는 듯이 중간계급의 지배계급으로의 급격한 경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주의의 몰락은 당연한 것이라는데 있어서 이들은 지배계급과 동일한 의견을 가진다. 그러나, 어디 이것이 중간계급만의 문제인가?

사회주의(?)의 몰락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지만 몇가지 편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 편향과 오류는 ①장기표식의 사회민주주의 발호나 ②박노해 씨처럼 아직도 소련 등 사회주의의 현재의 모습은 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로 나아가려는 하나의 진통으로 파악하려는, 따라서 소련인민과의 일대일 대화속에선 독선과 아집이 아니면 자기 사상에 대한 확신마저 사라져 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해야만 하는 식의 스탈린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 현재 페레스트로이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사회주의 건설의 편향을 스탈린으로까지 소급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고, 사회주의의 역사적 위치에 대한 재검토속에서 전인민의 국가론(이는 1977년에 와서야 헌법에 명시되지만 이미 그 싹은 1936년 스탈린의 '소련헌법 초안에 관하여'에서 보이고 있다고 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확

소련의 문제는 자본주의로의 전환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사회혁명으로 가능하다

장, 사회주의 생산양식론의 폐기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소련의 현실적인 변화를 이론화시키고 구체적인 분석은 결여하고 있다.

글을 읽다보면 느끼겠지만 필자는 이제껏 사회주의라고 쓴 뒤에 의문부호를 나란히 달아 놓았다. 필자는 현재의 소련이나 동유럽, 북한 등을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의 인식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소련과 중국과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관료가 지배하고, 관료가 자본가가 되어 노동을 통제하는 나라,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스탈린의 반혁명에 의해 파산난, 따라서 개혁이 나타나게 된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잉여노동을 만들어낼 능력의 부재라고 파악해야 한다.

정치경제학의 경우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물론이고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해서 재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 중 국가와 자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재검토를 바란다. 193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변화와 일본과 서독의 발전과정 및 제3세계, 특히 NICs의 발전 메카니즘에 대해서도 또한 세계체계론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1920년 이후의 소련의 역사를 검토하는 것이다. 스탈린과 부하린, 트로츠키 등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본다.

소련의 문제가 단순히 시장의 도입이나 다각적인 자본주의로의 전환에 의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사회혁명에 의해서만 극복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그것은 세계혁명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시각의 대전환을! 그리하여 먼 미래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혁시켜야 할 세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요구된다.

류 해 광
〈국문·3〉